

촛불 저널리즘 왜곡-선동 춤췄다

左右대결 ... 위기의 한국 言論 긴급진단

對 談

南時旭 (전 문화일보 사장)

宋 復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정리: 崔熙助 본회 편집위원

공영 TV방송과 인터넷 매체, 일부 신문이 시위대의 불법 폭력 현장에 대한 사실보도를 외면하고, 공권력의 불법 폭력 시위대응은 과잉 강제진압이라고 보도한다. 그런가 하면 불법 시위대의 주동자들을 매체에 지속적으로 등장시켜 시위의 민주성, 자발성, 평화성을 부각시키는 보도에 열을 올린다. 지난 5월 이후 불거진 불법 폭력적인 촛불시위 이후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양상을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다. 편파, 왜곡보도로 인해 '한국 언론 이대로 좋은가' 하는 심각한 우려의 소리와 함께 정확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지향해야 할 언론이 이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언론인회(회장 趙昌化)는 南時旭 전 문화일보 사장과 宋復 연세대특별초빙교수의 대담을 마련했다.

南時旭(이하 南)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까지 해방 공간에서 신문이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 후에는 자유당 정권 말기에 경향신문이 정부로부터 폐간 조치를 당하고 편집인협회가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자 서울신문이 정부 편을 들었다가 사육이 불타는 일이 있었을 정도고, 언론사끼리 치고 받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 언론사간 갈등은 이념적 차이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데서 오는 안타까운 현상이라 봅니다.

宋復(이하 宋) 작금의 언론사간 문제는 남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좌우 이념 대결이라기 보다는 정권 타도 차원이란 생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전에는 독립촉성협회 지지 여부를 놓고 신문사가 갈렸을 정도고, 지금처럼 매체끼리 정권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성향으로 평가하기 하듯 하는



南時旭 씨



宋 復 씨

정확성·객관성·공정성 한가지도 안지켜 政權타도 차원의 前 近代的인 보도 판쳐

건 21세기의 기이한 현상입니다.

南 해방 공간의 좌우 대립은 굉장했습니다. 신문사를 습격하고 기물을 파괴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정부 수립 후엔 좌익이 불법화 되고 좌익 신문이 폐간돼서 지금 양상과 달랐습니다. 자유냐, 평등이나, 성장이나, 분배나, 시장원리나, 아니냐 하는 건전한 논쟁은 무방하지요. 인신공격이 문젭니다.

宋 우리 언론의 기이한 현상입니

다. 좌우 이념 대립보다는 선진 언론과 후진 언론의 대립이고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논란을 빚는 MBC PD수첩 같은 게 21세기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21세기의 후진 현상입니다. 군중 정치, 촛불 시위 자체가 후진국 현상입니다. 이를 지지하는 인쇄 매체는 후진 매체라고 보는 겁니다. 선진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매체로선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지요. 어떻게 후진 매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南 대의민주주의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지만 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송교수 말씀처럼 PD저널리즘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선 뉴미디어, 인터넷, 촛불시위, 이런 게 합쳐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분석 대상이며, 한편으로는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우선 문제의 4월 29일 MBC PD수첩이 문제구나 하는 것은 저도 그걸 보았지만 PD들이 보도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사실을 나열하는, 마치 수정주의 학자가 역사를 쓰는 것 같았어요. 저널리즘에서 논설은 사람이 사람한테 논하는 것이지만, 보도는 하느님이 사람에게 하는 신성불가침 같은 것이라 합니다.

의견 보도와 사실 보도가 뒤죽박죽입니다. 예를 들어 공중파TV가 뉴스를 보도하는데 이러쿵 저러쿵 사실을 나열해 놓고선 끝에 가서 시청자나 제3자도 아닌 리포터 스스로가 이걸(자신이 보도한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 라고 코멘트 합니다. 우리 저널리즘 수준이 이래요. 규범이나 직업윤리도 안지켜요. 인터넷, 신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宋 자유주의 언론은 과정 추적을 통해 결론을 유도한다면 사회주의 언론은 결론부터 내놓고 거기에 꿰맞추는 식입니다. 사회주의 언론의 한계성은 결론에 맞는 사실만 짜맞추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 식입니다.

이건 정신적 황폐성과 언론의 황폐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속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기이한 현상입니다.

100여년 전 사회주의 나라에서나 있었던 기이한 현상이지요. 우리 언론인들이 이걸 왜 못 느끼는가 하는 건 감정의 치열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성과 감정 속에서만 들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3면으로 이어집니다

2008년, 재롱이 담긴 손녀의 영상편지를 보았습니다

2006년, 뉴욕으로 유학 간 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2004년, 버스에서 TV를 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3년, 아내 몰래 딸에게 용돈을 부쳐줬습니다

2002년, 아내의 애창곡으로 컬러링을 바꿨습니다

2000년, 알면서도, 아들에게 문자 보내는 법을 또 물었습니다

1997년, 아내의 생일 날, 처음으로 휴대폰을 선물했습니다

1994년, 군대 간 아들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1993년, 마라도의 파도소리를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1989년, 가족들 안부를 잘 챙기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1988년, 7월 휴대폰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의 동고동락

1988년 7월 태어난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생과 함께 나란히 커왔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면 함께 웃고, 당신이 슬퍼하면 어깨를 다독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역사를 만들고, 희망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무살의 대한민국 이동통신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앞으로 20년 후 아니, 그보다 훨씬 먼 훗날까지도

늘 당신과 함께 새로움을, 즐거움을 나누겠다고

사람을 향합니다

“PD저널리즘은 21세기의 후진현상”

左右대결... 위기의 한국 言論 긴급진단

1면에서 이어집니다

南 나라 전반이 그렇지만 언론이 프로페셔널리즘으로서 직업윤리가 문제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언론은 철저히 무대 밖의 관찰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언론이 배우로서 주역 노릇을 해요. PD저널리즘에 대해선 언론계 모두 건설적이고 심각한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선 안 돼요. 언론학에선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취재 기자는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자 훈련을 받아야 해요. 훈련이 안 된 기자의 공통 결점은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는 것이예요.

편견과 선입견은 건전한 판단을 잃게 합니다. 문제의 PD수첩 같이 긴 시간 프로를 만들려면 포괄적 사실을 담아야 하는데 미국인구 2억8천만명이 쇠고기를 먹고 있고 실제론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 언급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저도 그 프로를 보고 미국 쇠고기를 먹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등 방송저널리즘은 ‘사실적’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우리 언론은 혼돈 상태예요. 기자들은 관찰자이지 배우가 아닌데 주역을 하려하고 사실과 의견을 엄격히 나누어 보도해야 하는데 뒤섞어 보도하는데서 문제가 빚어집니다. 대의민주정치도 한 20년 후퇴한 것 같구요.

宋 저널리즘이나 아카데미즘, 모두 팩트(fact)가 절대 중요해요. 여러 측면에서 현장주의에 입각해서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는 등 다각적인 사실 추적이 필수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기자에게도 상식이에요. 우리한테 이 상식이 왜 깨졌나, 왜 결론부터 내놓고 가느냐 하는 겁니다. 검찰에 고발했다지만 정부는 또 무엇 하는 겁니까. MBC 방송에 변명하게 하고, 양식 있는 기자는 왜 안 나오는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야말로 괴담 같은 현실일 뿐입니다.

南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몇 년 전 바다밑 환경 관련 고발사진을 조작 보도했다가 이것이 문제되자 회사 내에서 사장까지 인책 사임하고 보도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책임 의식이 없어요. 교묘한 어휘로 미디어 수용자들을 헛갈리게 해선 안 돼요. 문제의

PD수첩은 공정성, 형평성, 정직성, 성실성 등 직업윤리를 찾아볼 수 없어 개탄할 일입니다. 언론이 망가졌어요. 제의하고 싶은 건 취재는 기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성 프로인 미국의 ‘식스티 미니츠’(60 minutes) 등의 경우에도 PD는 프로를 제작하지만 취재는 기자가 해요. 우리나라에선 지난 80년대부터 PD가 직접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PD도 기자 훈련을 받아야 해요. 연세대 대학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 방



대담하고 있는 南時旭씨(왼쪽)와 宋復模

입니다. 조 중 등을 포함, 신문을 보수니, 진보니 구분하지만 진보란 말은 잘못 붙인 이름입니다. 촛불시위를 진보연대가 주도한다고 하는데 19세기식 행동을 어떻게 진보라 할 수 있어요. 후진중 최고 후진이에요. 언론도 보수는 있지만 진보 언론은 없어요. 진보라는 말을 다시 고쳐 써야 해요. 후진적인 걸 어떻게 진보라 할 수 있어요. 진보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설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

내세우는 것이야 말로 수구 발상이지요. 100년전의 뒤진 사고인데 이게 진보입니까. 민족을 내세우는 건 민족을 죽이자는 거고, 민족을 초월해야 민족이 사는데 말입니다.

南 세계화 시대에 무역을 해야 하는데 노무현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벌여놓고 모순과 갈등을 빚었죠. 폐쇄 민족주의는 FTA 반대 아닙니까. 보수 우파 세력이 논리를 개발한 것은 극히 최근이지요. 그전엔 제대로 말 못 했어요. 기득권 세력이니 수구 뭐니 해서 밀려 있기만 했지요.

宋 지난 20년 보수 세력들이 준비 안 하고 허술하게 생각해 온 게 오늘날 이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 몇천억원 사회에 내놓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합니까. 미국 영국 일본처럼 대기업들이 인재육성 같은 발상을 하면서 내놓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가 지금도 소극적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준비가 없었구요.

南 PD저널리즘은 훈련, 교육이 부족한데다 gatekeeping system이 없어요. 그래서 균형 보도, 포괄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언론자유는 법이 보장한다지만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유이고, 자유와 책임이 같이 가야 합니다. 사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라 아무 얘기나 한다고 자유는 아니지요. 자유민주주의 악용하는 민주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문 광고 중단 압력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업무 방해 행위입니다.

宋 범죄행위죠. 그나마 MB정부에 다행인 것은 정권 초기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지요. 저는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MB가 다운너(downer)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망하는데요. 올 한해 재정비해서 기력을 되찾고 국민 자성도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3분의 1 정도는 진보라 하고 나머지는 중도라 대답했는데, 요새는 자신이 진보라고 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되새겨볼 현상이지요.

南 언론의 건전 비판은 무방하지만 인신 공격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팩트는 뒷전 결론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보도

송국 부국장급 이상 간부 60명이 6개월간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간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꺼번에 그 많은 간부들이 회사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일선 기자부터 교육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宋 본성이 망가졌어요. 거짓말 해서 안 된다는 건 본성이지요. 기자가 사실보도해야 한다는 것도 지상명령이구요. 사실보도를 안하면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게 본성인데 수치심을 안 갖는다면 본성이 파괴된 것이지요. 왜 그러졌어요. 격한 감정 때문에 이성이 마비된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분류할 때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에서 25,000달러에 이르면 갈등 절정 사회에서 선진 사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보도를 해서 화해시대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밥먹듯 해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의문

를 계기로 보면 우리나라의 진보는 진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용어를 가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南 제가 요즘 <진보세력연구>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진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써야 하겠네요.(웃음)

宋 논어에 정명(正名)사상이란 게 있는데 이미 2,500년 전에 용어를 바르게 써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통하지 않는다 했지요. 서구 사상의 자유주의가 첫 진보사상이고 그 부작용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그 차이는 방법론이지요. 자유주의는 점진적이고 공산주의는 급진적 사회개조를 내세웁니다.

南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좌파 민족주의로, 자신들은 민족을 앞세워 미국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하고 우리끼리 통일해야 한다고 하지요.

宋 세계화의 열린 사회에서 민족

광우병 怪談에 균형감각마저 함몰

방 송 시 평

요즘 방송에 출연해서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학교수를 비롯해 전문가라는 이들도 상대를 폄하하고 매도하는 데 열을 올린다. 패거리 문화에 함몰된 사람들로 보인다. 자신을 되돌아 보기보다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며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는 생각들로 꽂힌 것 같다. 우리는 모두 좋고 너희는 모두 나쁘다는 인식의 틀이 굳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갈등과 다툼의 사회를 만들어 낸 책임의 한 가운데에 방송이 있음은 커다란 비극이다. 특히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은 “나는 투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거칠게 외치며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먼저 지난 7월 5일 방영된 MBC TV의 뉴스 후를 모니터 해보자.

조·중·동 vs 네티즌이란 타이틀을 내건 이 프로그램은 예고편부터 섬뜩한 느낌을 들게 한다. 분노하는 시민들, 시민들은 왜 조·중·동 out을 외치는지를 집중 취재했다고 포문을 열면서 “조·중·동은 쓰레기”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남북의 창 부장
· 신성대 교수

중과 방송이기보다는 사생결단을 작심한 전투 장면들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같은 날 KBS는 ‘미디어 포커스’에서 점점 격해지고 있는 언론사간의 대결을 ‘편싸움에 빠진 한국 언론’이란 타이틀로 보도했다. 미디어 포커스는 언론이 전선의 맨 앞장에 서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로 시작됐다.

한국언론은 조선·중앙·동아세 신문과 한겨레·경향 그리고 KBS·MBC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진 양상이다. 한겨레·경향은 조선·중앙·동아를 비난하고 조선·중앙·동아는 주로 KBS와 MBC를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중파’ 상식넘어 사생결단식 비평 조·중·동 혈뜬기 지독한 편향성 노출

“매국노 기자들”이라는 등의 험악한 내용의 피켓들을 뿌렸한 화면으로 보여준다.

조·중·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네티즌들은 천사요 조·중·동은 악마이며 MBC는 심판관이고 정부와 검찰은 악마를 편드는 사탄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내용들이었다.

네티즌들이 시위를 하고 광고 불매운동을 벌이며 흥분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며 조·중·동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와 말 바꾸기 그리고 촛불집회 왜곡보도 등에 대한 시민 주권의 당연한 발로라는 설명으로 일관한다.

광고 불매운동의 결과로 조·중·동의 광고 수익이 크게 줄었고 일부 기업들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포용이며 명분도 약하고 처벌도, 기소도 어렵다는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광고 불매운동을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인상까지 주었다.

또 조·중·동은 매체로서의 신뢰성이나 영향력에서 5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는 언론재단의 면접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자존심마저 마구 헐뜯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중립을 지키고 공정해야 한다는 공

결국 보수를 대표하는 조·중·동과 진보를 추구하는 한겨레·경향·KBS·MBC의 양대 진영으로 극명하게 갈라져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미디어 포커스는 이날 “미디어 비평이 정확하나 공정하나 보다는 자기 소신에 맞지 않는 상대에게 옳지 않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경성대 우병동 교수의 인터뷰를 다뤘고 마무리에서 역사의 공정한 기록자여야 할 언론이 전사·투사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반성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KBS 미디어 포커스는 바로 다음 회인 7월 12일자에서는 ‘포털 길들이기 나선 조·중·동’이란 타이틀과 종교를 보는 언론 ‘그 때 그 때 달라요’란 타이틀의 보도에서 조·중·동에 대해 못마땅한 기조의 보도를 되풀이했다. 미디어 포커스가 특정 집단을 집중 공격하는 도구로 지독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일리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 다음주인 7월 19일에는 YTN 이사회의 사장 선임문제를 다루면서 ‘전배 이럴 수 있습니까? YTN의 눈물’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격렬한 동영상을 4분여 동안이나 중계 형식으로 보여 주었다.

신문 시 평



이 병 국

· 본회 회우
·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예측하고자 불을 켜다.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려는 진짜 속내는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고 변화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 같은 것 때문일 것이다. 지난 4월 말 ‘광우병 괴담’으로 촉발돼 2개월여나 지루하게 계속된 ‘촛불 시위’의 진정성에 넋더리가 난 민초들은 7월에 어떻게든 풀릴 조짐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불행히도 예상은 빗나갔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도 일부 매체간의 극단적이고 아전인수식 보도는 7월에도 계속됐다. 급기야 어느

있다는 논리로 지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조·중·동과 서울신문은 종교인의 참여에 부정적인 논조를 펴고 있다. 조선일보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2일)를 들고 있으며, 중앙일보는 ‘식탁 안전이라는 문제를 떠나 반미·반정부 투쟁양상’(1일)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동력을 살려주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2일)은 본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동아일보(2일)는 보고 있다. 서울신문 역시 ‘정·교 분리원칙을 떠나서라도 종교인들이 어차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정책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3일)는 주장이다.

일부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에 대한 네티즌의 ‘광고 중단 압박’ 역시 놀랍게도 성직자의 촛불 시위 보도와 같은 논조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선일보는 ‘광고의 원칙과 거꾸로’(1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아일

과학적 사실 까지 아전인수식 보도 혼란 부추기기 급급 팩트는 사라져

신문에 나오는 모두 믿을 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자조섞인 푸념이 더욱 광배해졌다. 우리 언론은 언제쯤 이런 치욕(?)을 씻어 버릴 수 있을까?

필자는 7월 1~19일간 소위 보수신문으로 일컫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지로 불리는 경향신문, 한겨레 그리고 ‘중도 진보’로 선회했다는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의 사설을 분석해 봤다. 사설의 제목은 다소 다르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 주제로 다룬 사설이 매체에 따라 어떤 주장과 논리로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서였다. 그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사설 주제는 11개로 ‘성직자와 촛불시위’, 그리고 8개의 ‘광고계제 협박’ 관련 등 2부류였다.

천주교, 기독교 등 성직자들의 촛불시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방한 사설의 논조와 강도는 매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인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긍정적인 논조로 본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였다. 경향은 ‘내각의 치부와 무능·오만에 대한 국민의 심판’(3일)이며 ‘정부의 종교편향’(5일)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 역시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에 탐욕을 씻어내 죄와 고통으로 구원한다는 종교적 성사’(2일)이며 ‘오만과 실정뿐 아니라 종교적 편향성’(5일)이 성직자들을 거리로 이끌고

보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 범위를 벗어나기’(3일) 때문에 조·중·동에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일보도 ‘소비자는 원하는 물건을 살 권리가 있다’(5일)고 말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서울신문이다. ‘소비자들이 값싼 쇠고기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7일)이므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달랐다. 경향신문은 “검찰과 보수 언론이 일부 광고주를 앞세워 ‘짜고 치는 수사’라는 의심이 간다”(17일)고 지적했으며, ‘피해자라는 기업은 처벌과 수사를 원하지 않는데 검찰이 앞장서서 억박지르는 꼴’(9일)이라고 반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은 한겨레였다. 성직자들의 촛불시위 참여나 광고주 압박 등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아전인수식 보도와 논평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PD수첩’ 프로그램 이후가 아닐까 한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공론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는 대신 각기 아전인수식 ‘편싸움의 한 주체’가 되어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논조를 펴는데 골몰했다. 급기야 신문끼리도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혼란을 부추기는데 열중한 나머지 ‘팩트’는 실종됐다.

5면 방송시평으로 이어집니다.

5면 신문시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主張

집안 싸움은 言論의 자살 행위다

한국의 언론사들이 편이 갈려서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방치한채 우리가 감히 언론자유를 논할 수가 있는가.

지리멸렬의 몰골이 되어버린 오늘의 우리 언론의 추한 모습은 바로 언론계 스스로가 함락으로 그려낸 한국 언론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언론과의 전쟁’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이 땅의 신문과 방송들을 ‘보수’와 ‘진보’, ‘친노’대 ‘반노’로 인위적인 편 가르기를 한 노무현 정권시대의 언론 플레이는 그나마 선이라도 분명한 편이었다.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구획선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가 장기화 되면서 언론계의 내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대결양상도 다자(多者)구도로 바뀌면서 한층 복잡 미묘해졌다. 종이신문으로는 보수언론의 대명사인 조선 동아 중앙이 한 편이고 그 반대편에는 한겨레와 경향, 오 마이뉴스를 대립각으로 해서 공용방송인 KBS와 MBC가 진보쪽에 포진하여 하고많은 날 치고받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빠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많다고, 포털 사이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매체들까지 대거 의용병처럼 끼어들어 ‘촛불전선’에서는 오히려 정규언론과 주객이 전도되었을 정도로 한 몫 단단히 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포털들의 대거 참전(?)은 진보언론 쪽에서 보면 천군만마의 원군이라도 얻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심지어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촛불집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위대를 빼돌리는 실시간 교통안내까지 담당했을 정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 대변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기 때문에 보수언론도 진보언론도 다 같이 필요한 것이다. 중산층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신문도 있어야 하고, 서민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중의 소리 매체도 있어야

한다. 북한의 언론들처럼 정권의 나팔수로 모든 매체들이 획일화 된다면 그것은 이미 정권의 선전 도구지 자유언론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중 과연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냐는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굳이 논평할 가치도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池 龍 雨

본회 편집고문 · 논설주간

부분을 등한히 해서 과우병 공포감을 국민에게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언론이, 그중에서도 파급효과가 대단한 방송사가 사실(fact)을 너무 부풀려 보도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오보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시청자들이 크게 흥분하고 증폭된 피해의식이 엄청난 군중을 촛불현장으로 끌어내는데 결정적 뇌관구실을 했던 것

송으로서의 참 모습이 아닌가.

촛불시위를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은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고 사실보도와 진실보도를 외면하고 각사가 자사의 입맛대로 선별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균형감각을 잃고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일쑤였다. 보수는 시위대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폭력장면만 집중 촬영해 보도했고, 진보언론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방패로 내리치는 영상만 찍어서 보도해 독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대체 이게 무슨 언론이 취할 수 있는 행태란 말인가? 이렇게 한 집안끼리 싸우는 우리 언론 내부에는 이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5번)의 그 장중하고도 깊은 심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산한 소리가 들려오는 듯싶다. 무엇보다도 통탄할 일은 폭도들에

보수 · 진보 담장 허물고 大道로 나서야



沈 載 福 본회 편집위원

의해 언론사가 한 밤중에 습격을 받아 간판을 부수는 등 테러를 당했는데도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일절 동정의 글이나 비난성명 같은 것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조 중 동 심판’을 구호로 내 걸었던 40차 촛불집회를 마친 시위대중 일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몰려 가서 “조선 동아는 쓰레기다”라고 고함치면서 신문사 간판을 부수고 신문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까지 난입해 외국인 투숙객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는 소동을 빚었다.

오늘날처럼 신문이나 방송이 이념적으로 갈라서기 전인 지난 시절 같은 한 동업언론사가 폭도들에게 이런 봉변을 당했을 경우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엔 라이벌사간에도 ‘동종업종 편들기’ 차원을 넘어 동업신문에 가해진 폭력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동전선을 폈던 아름다운 전통을 자랑하던 것이 우리 언론계였다.

비록 때는 늦었지만 이제 우리 언론계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언론 스스로 묘를 파는 어리석은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보수 진보의 편향한 울타리에서 뛰쳐나와 넓고 반듯한 언론대도를堂堂히 걸어가야 한다는 대 명제 앞에 서있다.

먼저냐는 멍청한 논쟁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매체간의 잘잘못이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촛불집회의 발미는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제공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이다.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우너 쇼’를 (모두)과우병 소처럼 해설하고 영상조작까지 한 실수는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또 늦게라도 오보를 시인했다면 방통위에 의한 대국민사과 권고가 없었더라도 MBC 스스로가 정중히 사과했어야 옳았다. 그것이 책임있는 공영방

산된 토론부대와 서투른 이명박 정권의 실용부대가 부딪치는 형국인데, 말 잘하는 토론부대를 말의 매체인 방송이

편들고 있으니 MB가 힘들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 같다

4면 방송시평에서 이어집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정적인 편입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YTN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도 조·중·동은 가볍게 다뤘다고 지적하면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특보의 KBS사장 내정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중·동이 YTN 사장 선임에 침묵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이어 전직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문제를 다룬 ‘기록물 내보라 공방에 뛰어난 언론’ 코너에서는 조·중·동의 보도가 편향됐다

며 집요한 비난으로 일관했다. 반면에 문제의 발단이 된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자료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부적절했지만 검찰 수사로 갈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편파성을 드러냈다. 균형 감각이 마비된 증세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미디어 포커스는 이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포커스와 전직 대통령 그리고 경향·한겨레 신문은 한편이고, 이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와 이를 보도한 조·중·동은 다른 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었다. 토론을 앞세운 노무현 정권 때 양

4면 신문시평에서 이어집니다.

국가와 민족 모두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와 논평이라기 보다는 보수는 진보든 자기네 편 입장에 좋다고 여겨지는 주장만을 앞세운 건강부회식 논조가 적지 않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오랜만에 보수·진보를 가르지 않는 보도와 논평이 일시적이거나 돌보인 것도 7월이었다. 12일의 ‘금강산 관광객 사망’과 ‘독도’ 사태에 대해 모처럼 많은 신문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과 일본을 규탄했다.

여기에선 보수도 진보도 없이 모두 ‘진상규명’ ‘영토주권 수호’를 외쳤다. 국가 이익이라는 현실 앞에 아전인수식 보도가 자리를 차지할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국익 앞에 한 목소리를 내라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불수록 부끄러운 자기 편에 좋은 이야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부끄러운 보도만은 이제 진정으로 그 만 둘 때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이 함께 합니다

가던 길만 가는 기업은 가던 길만 압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이 있기에 꿈 같은 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 유통, 주거시설은 물론 토목, 플랜트, 해외분야까지 -
롯데건설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한국서비스대상
7년 연속 수상!(2002~2008)
아파트 부문 大賞



「김정일 OUT」 촛불은 왜 안 드나

광우병 소동과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갑자기 왜 방금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저 난리들인가? 아무리 인터넷 괴담(怪談)이 돌아다니고 PD 수첩이 어떻게 방송들이 선동을 해댄다 해도 그렇지 저게 뭐하는 짓들인가? 인터넷에 그런 괴담들을 올리고 또 저런 방송들을 해대고 모처럼 때를 만난 듯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며 느닷없이 청와대로 쳐들어갔다고 설쳐대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의문을 가져본 사람이 비단 나뿐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진압 전경들을 ‘개 패듯’ 했으며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국가 자산인 전경버스 등을 파괴하고 불질렀다.

미국사람들은 물론 세계 100여 개국 사람들이 먹

고 있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죽기라도 하듯 겁주고 아우성 쳤다. 그렇지 않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수입 미국 쇠고기 팔려는 사람, 사먹으려는 사람들을 동시에 겁박(劫迫)했다. 그 뿐인가. 한국 대표 신문들의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육을 공격하더니 취재 기자를 공격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잡아 다그치기까지 했다. 조·중·동 신문 광고주들을 겁박하고 업무방해까지 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도대체 이들은 대한민국의 누구인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요 중대

한 문제다. 촛불난동 시위대들은 정말 방송과 인터넷이 말하는 대로 그냥 순수한 국민이요 시민들인가? 아무런 저의도 편견도 없는 애국 시민들인가? 이른바 ‘촛불문화제 시위’ 행사가 있는 날은 시위자들을 싣고 온 버스들이 대학로를 가득 메워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다는 목격담을 듣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디서 온 누구들인가? 서울 시내에는 북한 간첩들이 우글거린다는 말도 나돈지 오래다.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은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안 될까? 정부는 촛불의 정체를 끝까지



박화진
본회 회우

인들 경제고 일자리고 어떻게 해보겠는가? 그토록 집착한 대운하 공약도 그렇고 미국과의 FTA비준도 그의 경제 살

명박의 리더십이 어떻게 소통이 어떻게 하며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한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소동의 주범(主犯)인 것처럼 공공연히 비판한다.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 난동은 예정되었던 일이란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어진다. 다른 사람이 당선되어 똑같은 쇠고기 타결을 했어도 이런 난동이 있었을까? 소통이 잘 안되어서란 설명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위세력이 소통을 한다고 “아 그래요 몰랐네요. 미안합니다”하고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에게 잘못이 있다면 생즉사, 사즉생(生即死, 死即生=

현대 아산이 7월 11일 오전 9시 40분경 금강산 북한군 경계구역 안에서 박왕자 씨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찍은 사진. 오른쪽 원안이 박씨가 쓰러진 지점이고 주변에 여러명의 북한군 병사가 보인다. (사진제공 정부합동조사단)

출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 중동을 구독하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촛불시위 세력도 있지만 그들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나 같은 국민, 독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상(真相)이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요즈음 같은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1~2년에도 강산은 몇 번 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인적 물적

정신적으로 너무 좌경(左傾)화 되어있다.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에 난동을 부리고 미국 쇠고기 안 먹겠다고 광화문을 온통 불법천지로 만들더니 ‘김정일군(軍)’의 야만적인 금강산 관광 한국인 총격살해에 대해서는 비굴하게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본다.

왜 ‘김정일 아웃’의 피켓을 들고 나서지 않는가? 촛불난동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좌경화 실상(實相)이 어느 정도 인지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확실히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방송과 신문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선동방송 · 폭력 시위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정부탓하기 앞서 왜곡보도 · 난동 진상 밝혀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까지 한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알고나 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라고 이명박을 선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판 대처’가 되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그래서 여당 후보보다 500만 표 이상 많은 압도적 지지로 그를 대통령에 뽑아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을 잡고 뒤흔들어 버렸다. 이래가지고야 천하의 이명박

리가, 일자리창출 공약의 전제조건이었을 것이다.

쇠고기 협상 타결을 서둔 것도 그 포석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이번 소동은 그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그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공약 실현에 실패한다면 그 일차적인 책임은 광우병 쇠고기 난동을 벌이고 그것을 선동하고 부채질한 자(者)들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의 본말(本末)을 전도(顛倒)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듯이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심지어 조 중 동도 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을 각오를 하면 산다)의 기개와 각오 없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진상이 어떻게 저땡고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태의 도화선 역할을 왜곡 과장 보도의 진상과 폭력 및 난동으로 서울 중심가를 3개월이나 해방구로 만든 촛불시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도 검찰도 조 중 동 보도도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왜곡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

대한언론인회 新入회우 환영합니다



강명수(姜命秀)

1937년생. KBS 홍콩 특파원, (주)한진타워 사장. 서울 강남구 대치3동 우성A 5-506 (우) 135-834 전화 011-267-0230



박용근(朴龍根)

1936년생. 동화통신 주일 특파원, KBS 정경부장, 대우 일본 본사 사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A 2-805 (우) 135-836 전화 011-9019-5576



어경택(魚慶澤)

1945년생.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사·고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 1-206. (우) 150-762 전화 011-781-0081



윤종보(尹鍾保)

1945년생. MBC 해설위원·안동 MBC사장, (주)명보애드넷 회장.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3. 마포 아크로타워 A동 1102호. (우) 121-040 전화 011-266-6347



강용식(康容植)

1939년생. KBS 보도본부장·국회의원(3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A 15-1601(우) 138-797 전화 019-353-7824



박정규(朴井圭)

1940년생. 한국경제 기자, 한서실업 대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1 롯데케슬프레미어 110동 401호. (우) 135-863 전화(011-254-7331



오건환(吳健煥)

1941년생. KBS 경제부장·편집주간·스포츠국장·파리총국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미도A. 212-302(우)135-837 전화 017-701-5358



이남규(李南圭)

1936년생. 조선일보 외신부장·문화과학부장·주미특파원·논설위원·스포츠조선 편집국장대리. 서울 강남구 일원동 625-6. (우)135-943 전화 011-347-0093



김영범(金永凡)

1941년생. 대한일보 기자, 한컴 대표이사, (주)CPS 회장.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915-3. 대립A. 104-802 (우)446-941 전화 031-266-1203



봉두완(奉斗玩)

1935년생. 중앙일보 논설위원, 동양방송 앵커. 국회의원(3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300-95 한강맨션 38-302 (우)140-724 전화 010-9339-2448



유무정(柳武正)

1942년생. 신아일보·서울신문 기자, MBC 뉴스부장·해설위원, (사)임희선도태백원 대표. 서울 은평구 구산동 25-6 참빛레미안 302호 (우)122-820 전화 010-3901-4298



이보길(李保吉)

1943년생. KBS홍보부장·해설위원. 서울 성동구 하왕 2동 풍림A 109-1802. (우) 133-737 전화 010-4461-5657



김정일(金定一)

1939년생. 시사통신 정치부 기자.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장. 경기도 여주군 접동면 흔암리 206-16. (우) 469-872 전화 017-534-4352



송선무(宋善武)

1940년생. 경향신문 특집기획부 부장·편집위원, SBS 심의위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초입마을 풍덕A 108-1504 (우) 448-171 전화 010-6263-3032



유자효(柳子孝)

1947년생. KBS파리특파원, SBS보도제작국장·해설위원실장·라디오본부장·이사,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현대슈퍼빌 B동 1304호(우)137-919 전화 011-477-2205



이성춘(李成春)

1939년생. 한국일보 편집부국장·논설위원·이사, 한국기자협회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삼성A 1014-504 (우)463-901 전화 011-249-9900



노재승(盧載昇)

1939년생. 대한일보 기자, 내외경제 편집국장·논설위원.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306-1602. (우) 305-509 전화 018-421-1311



성병욱(成炳旭)

1940년생. 중앙일보 편집국장·주필, 고대 초빙교수, 세종대 석좌교수. 서울 은평구 불광 1동 633. 북한산 현대홈타운 104-601 (우)122-750 전화 011-9168-5055



유재철(劉在喆)

1944년생. 경향신문 논설위원, 세계일보 편집국장·주필. 서울시 중구 신당3동 남산타운A 23동 202호 (우)100-779 전화 017-231-8580



이연상(李連相)

1943년생. 동아일보 뉴욕지사장·한국일보 뉴욕지사 논설위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07새 천년 A 303-406호 (우)446-586 전화 010-7678-2012



문 청(文淸)

1944년생. KBS 기획조정실장, 아리랑TV 사업본부장, (주)베컴 회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1-6 신동아빌라 201호. (우) 135-959 전화 011-9998-1080



신대근(申大根)

1943년생. MBC보도제작국장, 충주·대구MBC 사장. 서울 송파구 문정동1 문정래미안A. 118-1402. (우) 138-764 전화 011-502-3000



유진수(俞鎭洙)

1939년생. 코리아 타임스 문화체육부장·사회경제부장·편집부국장 겸 논설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공작아파트 A동 603호 (우)150-875 전화 019-306-3142



이홍우(李泓雨)

1949년생. 전남일보 시사만화 '미나리여사' 연재, 동아일보 시사만화 '나대로' 28년 연재,국장급 편집위원. 서울 양천구 목6동 A. 227-502 (우)158-752 전화 011-9992-3731



박선영(朴宣映)

1956년생. MBC 기자, 동국대 교수, 국회의원(18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1 경남A. 3-106 (우)137-752 전화 010-5530-5666



안건혁(安健赫)

1942년생. 경향신문 문화부장·논설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1동 백마마을A. 115동 1701호. (우)410-708 전화 011-244-5455



윤병찬(尹炳贊)

1939년생. KBS시청자센터부장. 대원진흥 전무.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렉스A. 12동 508호 (우)140-722 전화 019-327-4250



인보길(印輔吉)

1940년생. 조선일보 편집국장·상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A동 306호(우) 150-883 전화 011-9863-2808



임한순(任漢淳)

1938년생. 동양통신 외신부 차장, KBS 홍보부장, 연합통신 외신국장.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한 라 A. 108-603 (우)430-704 전화 031-464-4070



장종덕(張宗德)

1943년생. KBS 월드뉴스부 차장·KBS 통일연구소 부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80. 미켈란쉐르빌 D-2503 (우) 463-858 전화 011-372-6441



정두진(鄭斗鎭)

1938년생. KBS해설위원, CBS 보도국장·방송본부장. 서울 강서구 방화3동 삼익A 409-101 (우)175-223 전화 011-723-7015



정서구(鄭書九)

1945년생. KBS 홍콩 특파원·해설위원. 서울 서초구 서초2동 우성A 9-906. (우) 137-773 전화 011-552-7511



조규만(曹圭萬)

1942년생. 한국경제 정경부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760-18 (우) 445-913 전화 017-287-0103



최희조(崔熙助)

1943년생. 동아일보 경제부장, 문화일보 편집국장·편집상무. 중부대 초빙교수. 서울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 아침 4단지A 1504호 (우)110-873 전화 011-769-6174



한강수(韓康洙)

1943년생. KBS 제주방송국 보도국장, 목포방송국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A 3-1114 (우) 135-794 전화 016-686-5543



새로나온 책

■ 박鉉兌 회우 ‘나라 생각하는 글’

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

박현태(朴鉉兌) 회우 (전 KBS 사장·한국 프레스센터 이사장)가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관한 평론집 <천박한 국민 천박한 정치 천박한 언론>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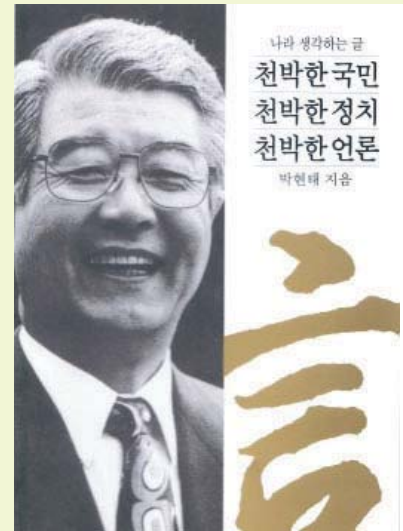
“정치는 무엇이나, 권력이란 무엇이나, 국가란 무엇이나, 사회란 무엇이나, 민족이란 무엇이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대중은 무엇이고, 엘리트는 무엇이나, 지금 우리 언론 제 갈길로 가고 있느냐.”

저자는 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하지 않고는 그냥 바길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언론계에 입문, 어느 분야보다도 정치문제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으로, 한때는 자신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 본 정치인이자 언론인이다. 언론계와 정치계에서 50년간 몸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정치와 언론의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낸다.

저자는 정치에 관한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순간이라고 말한다.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것은 비단 박현태 한 사람만의 애절한 나라 사랑의 길은 아닐 것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난국에 처한 현 시



점에서 정치인, 언론인, 국민들에게 보내는 모두의 절절한 절규인 것이다.

<양장본 250쪽 값 10,000원 동서문회사>

■ 成再參회우 체험적 세상읽기

혼자 살려거든 태어나지 말아라

성재삼(成再參) 회우가 체험적 세상읽기 에세이집 <혼자 살려거든 태어나지 말아라>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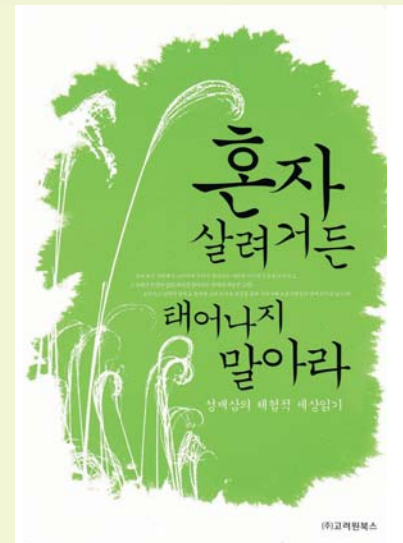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 말기에 태어나 8·15해방과 6·25전쟁을 겪고 3·15와 4·19의거, 5·16군사혁명과 제5공화국 탄생 그리고 연이은 민주정권 등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사회적인 격동기를 살아 온 한 지식인의 생생한 개인적 삶의 기록이다.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언론현장과 기업

일선에서 굴곡의 한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화해의 삶을 살아온 저자의 생각과 체험들을 뜨거운 육성으로 진술한 자전적인 에세이집이다.

저자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가난하고 굴곡진 삶의 연속이었으나 그 속에는 무한한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점철되고 있고, 그가 토로하는 솔직한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따뜻한 위로를 안겨준다.

<신국판 364쪽 값 10,000원 (주) 고려원북스>



요즘...



회우동경

· 가나다순



김포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

• 김남술(金南述) 회우 = 7월 24일자 로 (주)김포신문 논설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회우는 중앙일보를 거쳐 원광대학교수 일본대학 교육원 고문 등을 역임했다.



지방신문 협의회 간담회 주재

• 박기정(朴紀正)회우 (전남일보 사장·전국지방신문 협의회 회장) = 7월 1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오크힐스콘도에서 전국 지방신문협의회 2008년도 제3차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연합뉴스 전재료 인허방안 등 지방신문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케이블방송 리빙TV 대표로

• 백인호(白仁鎬) 회우 (전 YTN사장) = 7월 22일 관광 레저 전문 케이블 방송인 리빙 TV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됐다. 백회우는 매일경제 편집국장을 거쳐 MBN, YTN, 광주일보, RTN(부동산TV)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여성권의 증진 공로 훈장받아

• 신동식(申東植) 회우 = 7월 3일 여성부가 주최한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권의 향상 유공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신 회우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지위개선을 위한 노력을 40여년 넘게 실천해 온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인터넷 검색창에 **언론중재위원회** 를 쳐보세요.

www.pac.or.kr

신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아침,
TV에서 피어나는 해맑은 웃음,
인터넷이 보여주는 더 넓은 세상!

언론과 함께하는 오늘,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에 있어 든든한 언론중재위원회! —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신문까지 구제 신청 가능

| 상근 변호사와 전문 상담원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 조정 및 중재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쟁해결

| 방문, 전화, 인터넷 등 편리하고 간단하게 중재신청

|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구제 방법

언론피해상담 : 02)397-3000

이메일상담 :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 www.pac.or.kr

늙음의 症候群 어느 凡像의 老年期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60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노년이라든가, 그로 인한 삶의 마감 같은 것을 먼 훗날의 일인양 치부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물론 50대에 들어서서도 늙음의 증후(症候)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등 초로(初老)의 티가 역력해지고 가끔 ‘할아버지’ 소리를 듣노라면 ‘아! 이제 노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탑골 공원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내 모습을 보기도 했다. 그러나 50대에는 직장 일, 자녀들 일 등 먹고 살아갈 일로 쫓겨 판일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저 재수가 좋으면 앞으로 한 20여년을 더 살 수 있겠지 여기면서 늙음이란 먼 훗날의 일로 여겼었다.

그러나 이 멀게만 느껴졌던 늙음이 환갑을 맞게 되면서 늙음의 강도가 확 달라진다. 우선 환갑을 넘으면 ‘아, 이제는 명실공히 육순 노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저절로 든다. 평균수명이 80세가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나 그것은 ‘노인의 기간’이 그 만큼 늘어난 것이지 젊음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다.

노인의 특징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을 예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 때문에 환갑을 넘긴 노인들은 늙음에 더 예민해지고 각기 사후(死後)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라.

나는 50대 중반부터 죽기 전에 남들이 괜찮다고 평해주는 책을 한권 쓰면 하는 꿈같은 바람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가담치도 않은 욕망이 60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하게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즉 잊혀지지 않으려는, 다시 말하면 기억되려는 욕망이 발동한 것이었다.

허공에다 소리치는 것이나 다른 없는 이 분에 넘치는 욕망을 위해 내댔던 열심히 책과 씨름했다 (나는 아직 나안(裸眼)으로도 책을 볼 수 있는 복을 지니고 있다). 우선 평생을 별려오던 성서를 쉬운 현대 영어로 씌어진 것으로 골라 해설서를 옆에 놓고 근 10달에 걸쳐 독과한 후 문학 철학 역사 등 여러 분야의 책을, 나쁜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읽어갔다. 태반이 젊이



吳根泳

- 본회 회우
- 전 연합통신 상무
- 전 YTN전무

으니 책이나 실컷 읽으며 세월을 보내자, 독서량이 쌓여가노라면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달음이 축적되면 혹은 좋은 글 몇줄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더욱이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던 중 “왜 늘그막까지 공부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그가 “보다 선량한 인간으로서 보다 만족스럽게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대목을 보고는 늙어 죽을 때까지 독서는 계속해야겠구나 하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됐다.

그러나 독서를 하면 할수록 이 나이가 되도록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적다는 깨달음이었다. 즉 책을 읽어 갈수록 느끼는 것은 나의 자질(資質)이나 실력이 괜찮은 책을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젊었을 때는 일로 바쁘

서 읽어야 할 책들이었다.

물론 나의 독서목적이 반드시 좋은 책 한 권을 남기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노년기에 들어 시간도 많

니 이 다음에 늙어서 좀 한가해지면 독서에 열중하리라’고 태만했던 것이 이 꼴이 된 것이었다.

이래서 괜찮은 책을 써봤으면 하는 늘그막의 허황된 나의 욕망은 꿈으로 변해 떠다니게 됐다.

말이 쉽지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 부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기 위해 일생동안 얼마나 피땀 흘리며 몸부림 치는가. 대부분이 헛되이 말이다. 그들중 극소수가 ‘기억되는’ 행운을 누릴뿐이 아닌가. 어떤 소설가 말마따나 평범한 작품을 써서 그 수많은 작품 가운데 끼이는 것으로는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수백편의 시를 쓰고도 단 한 편도 독자에게 기억되는 시가 없는 시인이 우리 시단엔 허다하지 않은가. 이와는 달리 ‘아! 신화(神話)같이 다비데 군(群)들’ 등을 비롯, 우리 시사(詩史)에 길이 기억될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신동문(辛東門) 시인(1928~1993)은 그가 죽은 뒤 시집이 만들어지기를 원치 않았다. 병석에서도 시집 얘기만 나오면 “쓰레기만 하나 더 할 뿐”이라면서 사양했다(〈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13면으로 이어집니다.

溫故知新

민족의 뿌리 풍류정신을 되살리자

우리 겨레의 풍류정신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풍류사는 곧 신명(興)과 정한(恨)을 양대 축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사와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학문을 사랑하고 무술을 숭상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이웃과 화목할 줄 아는 아름다운 기풍이 있었다.

착한 행실을 권하고 나쁜 소행을 삼가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 이는 모두가 단군성조(檀君聖祖)의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정신, 곧 우리 민족 고유의 풍류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조선 이래 열국시대를 거치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근원이 하늘과 태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천신(天神)에게 제사 지냈으며, 천지의 조화 속에서 인간의 도리와 본분을 다 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우리 겨레가 고조선 이래 하늘—하느님을 최고신으로 받들고 백성이 모두 모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공동체 의식, 집단의 유대를 다졌던 것이다.

옛 기록에 나오기를 이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 동예에서는 무천(舞天)이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명칭이 전해오고 있지는 않지

만 하늘과 조상신에게 감사드리고 음식을 먹은 뒤에 노래와 춤으로 결속을 다지려는 이러한 공동체의 축제는 고조선 이전 원

시 부족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농경과 수렵 생활, 축제를 통해 집단적으로 겨레의 뿌리인 천신과 개인의 뿌리인 조상신에게 제사 올리고 자연과 어우러져 흥겹게 즐기는 가운데 흥과 멋이 넘치는 고유의 풍류정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상하, 귀천, 남녀, 노소의 차별 없이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이요 풍류사상의 발현이었다.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 고대의 풍류정신이 유교 불교 선교 등 3교의 핵심사상을 포용하여 효도 충성 선행 무위자연 같은 도덕적 가치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黃元隔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연구가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화랑세속 5계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 한다. 그 교를 창설한 내력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교화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에 들어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孔子)의 주지요, 무위의 일에 처하여 말없이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老子)의 종지요,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만들어 행하는 것이 석가(釋迦)의 교화이다….

결국 최치원은 단군 이래의 홍익인간 사상을 포함하여 외래 종교사상인 유불선 3교의 종지를 아울러 우리 고유의 풍류도와 풍류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최치원이 여기에서 말

한 나라의 현묘한 도, 즉 풍류가 단순히 화랑 세속 5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족 고유의 선도를 중심으로 여기에 3교의 사상을 더한 풍류도가 말로 민중을 교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며 난세를 극복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하늘의 보살핌을 받는 천손족이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해마다 천지신명과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베풀어 노래하며 흥겹게 놀기를 즐겼으니, 이 흥과 멋이 고유의 풍류도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라의 체제가 씨족사회에서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 왕권 중심의 왕국으로 발달하는 동안 축제와 놀이의 성격도 집단적인 문화에서 점차 소수 중심이며 개인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집단적인 놀이문화에서 흥이 비롯되었다면, 한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는 기록으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인 〈공무도하가(公無度可歌)〉와 〈황조가(黃鳥歌)〉가 전해 주듯이 남녀간의 관계, 즉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에서 싹트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13면으로 이어집니다.

Hi Seoul
SOUL OF ASIA

다시 만든다기 보다 다시 찾는 것입니다



600년의 자부심을 여는
光化門광장

2009년 6월! 광화문광장의 새 모습, 기대해주십시오!

600년 전 한양의 중심거리였던 세종로의 새 모습을 다시 찾겠습니다.
자동차가 지나던 자리는 시민의 발걸음과 녹지공간으로 채워겠습니다.
옛 고도(古都)의 자부심과 첨단(첨단)의 신비가 잘 어우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만들어가는 광화문광장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주십시오!

누가 國語를 파괴했는가

韓國語의 語彙중 한글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낱말의 30%에 지나지 않는다. 비, 눈, 바람, 하얗다, 파랗다, 한다, 간다 등등의 한글어는 자연현상, 감정, 동사 등 원초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民主, 知識, 冊, 言論, 機械, 常溫 같은 개념語와 전문語, 고급語는 거의 전부가 漢字語이다. 한자어는 한국어의 70%이다. 漢字語는 한자로 표기되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해진다. 漢字의 한자 한 자는 수천년간에 걸쳐 진화된 문자로서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 글자 자체가 인류의 지혜와 정보가 쌓인 寶庫이다. 예컨대 知識이란 한자 속에는 지식의 定義가 다 들어 있다. 화살 矢는 전략, 입 口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를 가리킨다. 음은 말과 글의 학문, 즉 인문학이고 품은 예술이며, 戈는 창, 즉 전술이다. 知識은 모름지기 전략, 전술, 경제, 인문, 예술을 두루 다 익힌 상태를 가리킨다.

우리의 語彙는 우리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이 만든 낱말과 명치 유신 이후 서양의 新文物을 받아들일 때 일본인들이 새로 만든 資本主義, 民主主義 같은 낱말들이 다 우리 國語사전에 실려 있다. 한국어는 韓·中·日의 합작품인데 여기에 한글전용이란 독선적 민족주의를 갖다대니 국어가 파괴된 것이다.

한국인의 문화생활은 漢字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역사, 철학, 문학, 법률, 종교, 관습, 예절 같은 기초학문과 민족문화가 모두 한자어로 표현되고 있다. 한글로 표기된 漢字語는 의미를 떠난 소리나 암호로 변한다.

‘전기’라고 쓰면 電氣 傳記 前期 轉機 중 어느 것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즉 암호가 되는 것이다. 정확한 발음도 어렵다. 소리와 암호를 가지고 의사소

독선적 민족주의 선동에 넘어간 언론·출판인 한글전용노선 추종 정신적 삶의 기반 뒤흔들

통을 하려면 힘이 들고 부정확하고 소란스럽다. 그런 언어생활이 오래 가면 행동도 언어를 닮게 된다. 정확도와 正直性이 떨어지는, 개념 없는 二流인간, 절도가 없는 三流국가가 되어버린다.

聯想작용과 깊은 思考를 유도하는 한자어를 쓰지 않으면 ‘생각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한자는 글자 하나 하나가 추상화처럼 이미지를 전달한다. 일종의 映像정보이다. 그 만큼 정보의



趙甲濟

·전 월간조선사장
·조갑제닷컴 대표

전달과 기억이 입체적이고 오래 간다.

한글전용은 한국어 파괴이고 정보전달과 思考기능의 파괴이다. 인간은 語彙力 만큼만 思考할 수 있다.

어휘력이 약해지면 창조성이 떨어진다. 이는 문화적 창조성뿐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요즘 한자를 안 쓰는 대신에 영어를 많이 쓴다. 한글전용과 영어교육 열풍으로 협공당하고 있는 것이 한자어를 中核으로 하는 國

語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迎合한 면도 있다.

한글전용에 의해서 한국은 고급, 전문적 독서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 한글전용으로 쓰여진 歷史書를 읽으면 암호화된 단어를 풀어야 한다고 머리가 아프다. 한글전용은 독서력을 약화시키고 책과 신문의 독자를 감소시키면서 국민교양을 망가뜨릴 것이다. 한국의 언론 출판인들은 결국 자신들이 먹고 사는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다. 우리 언론인들은 ‘한국어=70%의 漢字語+30%의 한글어’라는 너무나 뻔한 규칙을 위반한 代價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한글전용으로 쓰여진 모든 책과 신문은 文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憲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듯이 文法이 흔들리면 정신이 흔들린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반 이상이 漢字문화권 사람들이다. 한국에 가면 漢字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한글간판, 한글 표지판을 보고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한글전용이 계속되면 한국사회가 정신적으로 천박해지고 동양에서 문화적인 迷兒가 될 것이란 예언을 했던 이가 吳之湖 화백이었다.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언론인이 저지른 가장 큰 罪가 漢字추방-國語 파괴이니 가장 큰 애국은 한자復元-國語회복이다.

11면 ‘늬움의 증후군’에서 이어집니다.

11면 ‘민족의 뿌리’에서 이어집니다.

70대에 들어서서 돌이켜 보니 기억되려는 욕망은 역설적으로 나에게 많은 값 있는 선물을 주었다. 기억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았지만, 그 동안의 부지런한 독서는 나의 눈과 마음을 넓혀줬다. 세상에 관해서, 우주에 관해서 많은 것을 터득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큰 선물은 독서로 인해 나의 노년기가 값 있게 흘러 갔다는 점이다. 얼마전 타계하신 피천득(皮千得)선생은 생전에 이

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인간이란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존재가 아닌가 해요. 나이 들수록 잊혀지고 소외되는 걸 꺼리는 게 그 때문이겠지. 그러나 기억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구레한 삶에서 묻어나는 것이니까” (조선일보 2000. 9. 4). 현대의 어느 유명한 물리학자가 앞으로도 지구는 1억년 후에 기억될 사람은 얼마나 될는지.

사실 고대사회에서는 남녀간의 관계가 매우 자연스럽고 개방적이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남녀간의 사연이 이러한 사실을 잘 전해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이별과 죽음 같은 사건에서 민족 고유의 정한이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연綿히 이어져 내려온 민족 고유의 풍류정신은 열국시대를 지나 고려조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수

많은 풍류 명인을 통해 그 맥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살다 간 시대와 방식은 모두가 달랐지만 이들은 현실의 고통을 풍류의 멋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또다시 난세를 당해 간고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 주었던 것이다. 또다시 처한 난국, 말세 같은 난세에 우리 고유의 풍류정신을 되살려 신명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존재가치가 확실한 신문!

광주·전남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Good News Paper

복음을 선포하는 신문!
복지를 실천하는 신문!
민심을 대변하는 신문!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10 코밀빌딩 16층 전화 062-511-4200, 511-6752(fax)

전남도민일보

구름속 대관령 옛길걷기

본회산악회 상반기 山行 상황

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 7월 26일 회원과 가족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시 대관령 옛길에서 올상반기 산행을 가졌다.

이날 오전 오락가락 하는 빗발 속에 8시 정각 프레스센터 앞을 출발, 11시께 대관령 정상에 도착한 일행은 반정(832m)-썬터-주막터-원효재-대관령 박물관까지 총 7km를 2시간에 걸쳐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주했다.

하산 뒤엔 대관령 박물관 근처 향토음식점 '옛길가든'에서 뒤풀이 만찬을 갖고 회원들 간

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 조창화, 지용우, 장두원, 정운종 회우가 각각 금일봉을 전달했다.

산행에 동참한 회원은 다음과 같다.

△강진형 △김건이 △김세경 △김영호 △김의수 △김종현 △박승채 △신동식 △안종우 △안평선 △양성목 △여구만 △이정세 △이해성 △임상학 △임현태 △장욱 △장두원 △전의식 △정운종 △조창화 △지용우 △지정식 △최귀조 △최상목 △최의호 △한영탁 △가족 4명



대관령 박물관 앞에서의 기념촬영

「言論人葬」 전문업체와 업무제휴

특별 할인 가격으로 회원·가족에 혜택

대한언론인회 (회장 조창화)는 본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言論人葬'을 보조할 장례전문 업체인 '(주)다음세계' (사장·권오준)를 협력업체로 지정, 지난 달 4일 업무제휴식을 가졌다.

업무제휴에 따라 '다음세계'는 대한언론인회 회원이나 그 가족, 친지등의 애사가 있을 경우 특별 할인가격으로 장례를 도맡기로 했으며 고인을 추모원(납골당)에 모실 경우에도 50% 할인된 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장례비용은 현재 '효사랑 1호' 상품의 경우 396만원인 것을 320만원까지 76만원을 할인하기로 했으며, 장례 전과정에 장례지도사와 고인의 성별에 따른 염습 전문가, 홀 서빙도우미, 운구

도우미를 제공하며 특히 '다음세계'가 특허 등록된 고가의 '황제황실수의'를 제공해 저가의 중국산 수의를 제공하는 타 장례업체와 차별화를 기했다. 장례차량으로는 최고급 리무진과 대형버스를 제공하고 묘지, 화장장, 납골당 알선 등 각종 행정서비스도 하게 된다. '다음세계'의 콜센터연락은 (24시간 가동) 1544-4174~5나 080-9988-234이며, 임종시 즉각 장례전문요원이 상가를 방문해 고인의 종교별로 장례예식 절차를 상담하게 된다.

'다음세계'는 이달 중에 회원증을 발행해 회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노년기의 성생활 건강강좌 인기

20여명 참석... 다음강좌는 9월에

제2회 건강강좌(사진) '노년기의 성생활'을 주제로 7월 12일 오후 3시 명동 이운수 비뇨기과에서 회우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강좌에서는 이운수 박사가 남성성기구조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해설

했으며, 이어 참가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진지한 대화시간을 가졌다. 다음 제3회 강좌는 9월 20일쯤 열릴 예정인데, '여성의 성 심리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다룬다. 확정 날짜는 9월호 회보에 발표한다.

♣ 발전기금 내신 회우 임학수 · 송호창 회우 = 30만원 김 호 회우 = 10만원



임학수 회우



송호창 회우



김 호 회우

♣ 본 회 日 誌

(7월)

- 9일 = 상반기 감사
- 11일 = 편집회의
- 12일 = 건강강좌
- 24일 = 자격심사위원회
- 26일 = 산악회, 대관령 옛길 산행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 최의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42
- 동홍석 =서울 강동구 암사2동 선사현대 A. 109동 902호
- 이상근 =서울 광진구 군자동 48-14 나은빌딩 502호

♣ 부음 任炳燾 회우 별세

본회 임병돈 회우가 지난 6월 26일 강릉

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임 회우는 대한일보 및 중앙일보 기자로 활약했으며, '영동알림방' 주간을 지냈다.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김재영(09년 포함) 김정일 김진배 노재승 박선영 박정규 송경섭 송선무 송호빈 성낙오 신동식 안건혁 오건환 어경택 유재철 유진수 유한준 윤병찬 어경택 이두석(09년) 이상갑 이태자 이창호 이흥우 조규만 최희조 한강수 한영탁

· 2007년분

구건서 김재영 김진배 이태자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성낙오 회우



김 철 회우



박석흥 회우



최희조 회우

本會人事

편집위원장에 成樂五씨

조창화(趙昌化) 회장은 7월 14일 회보 편집위원장 겸 편집주간에 성낙오

(成樂五)회우를 선임하고 편집위원에 김 철(金 哲) 박석흥(朴錫興) 최희조(崔熙助) 회우를 보강 선임하는 한편 지용우(池龍雨) 논설주간을 편집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The Culture **XI** 자이

모두가 꿈꾸는 그곳 -

XI 자이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에너지 사랑 캠페인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를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삼성전자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 합니다

베이징의 즐거움 보르도로 볼까? 깐느로 볼까?

초절전시리즈
소비전력최대66%절감
★★★★★
PAVV



신제품 PAVV 보르도 750
62형 LNE2A750R1F
46형 LNA6A750R1F
40형 LNA4A750R1F

초절전시리즈
소비전력최대50%절감
★★★★★
PAVV



신제품 PAVV 깐느 650
PN50/58A650T1F

10년 후의 TV를 오늘 만난다

PAVV 보르도 750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 | 콘텐츠 라이브러리 | 파워 인포링크 | 파워 와이드링크

영화를 위한 TV

PAVV 깐느 650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 | 세계최고 100만대 1 명암비

PAVV 베이징 승리기원 페스티벌

이벤트 1. 크리스탈 로즈 경품 대잔치 기간: 6월 5일 ~ 8월 17일

행사기간 중 홈페이지 또는 매장에서 응모권을 작성하시면
총 1,110명께 선물을 드립니다



크리스탈로즈 650(40") 10명



디지털 액자 100명



영화티켓 1,000명(1인 2매)

※ 매주 111명씩 추첨하며, 탈락시 그 다음 주에 자동 재응모가 됩니다. 발표는 www.pavv.co.kr

이벤트 2. 대한민국 축구 승리기원 이벤트 기간: 7월 1일 ~ 8월 6일

한국축구 4강 진출시 행사기간 중 해당모델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을 드립니다



30만원 상품권

※ 대상모델: 보르도 750/깐느 650 46형 이상

보는 즐거움은 최대! 대기 전력은 최소로!

- 보르도 : 소비전력 66% 절감(KTL 측정기준, 1일 10시간/월평균 전기료 5만원 기준)
- 깐느 : 소비전력 50% 절감(IEC62087 표준 동영상 1시간 누적 측정결과)

※ 가까운 삼성전자 매장 또는 www.pavv.co.kr을 참조하세요. 본 행사는 참여점에 한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